

전남 카누 빛나는 '금 물살'...전국대회 '메달 잔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금 9·은 3·동 3 등 메달 15개 획득
 전남도청 여자일반부 종합우승
 임성화·김소현 3관왕에 올라
 전남체고 종합 준우승 등 맹활약

전남 카누 선수단이 제14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카누대회에서 메달 잔치를 벌였다. 전남도청·전남체육고·목포제일여고·삼호중 등 전남도내 카누팀은 지난 9·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청 카누팀은 금 4개, 은 1개, 동 1개를 수확하며 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임성화와 김소현이 각각 3관왕에 오르는 활약을 펼쳤다. 임성화와 김소현은 k-2 500m에서 1분51초9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차지했다. 임성화·김소현은 권은희·탁수진과 호흡을 맞춘 k-4 200m에서 38초456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성화는 권은희·김현희·탁수진과 함께 출전한 k-4 500m에서 1분44초1로 금메달을, 김소현은 k-1 200m에서 43초217로 금메달을 각각 추가했다. 권은희·김현희는 k-2 200m에서 41초519로 은메달을, 탁수진은 k-1 500m에서 2분07초3으로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차세대 유망주들도 선전했다. 전남체육고 카누팀은 금 3개와 은 1개로 남고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홍정현이 k-1 200m(37초974)에서, 홍정현·박철웅이 k-2 200m(35초734)에서, 박철웅·이진솔·이호준·조유빈이 k-4 500m(39초941)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철웅·이진솔·이호준·조유빈은 k-4 1000m에서 3분32초585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삼호중 카누팀은 금 2개, 은 1개, 동 1개를 수확했다. 김성현과 신진성이 k-2 200m에서 40초892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k-2 500m에서는 1분53초881로 은메달을 따냈다. 김성현·신진성·변승진·권관호는 k-4 200m에서 금메달을, k-4 500m에선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제14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카누대회에서 금 4개, 은 1개, 동 1개를 수확하며 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전남도청 카누팀. 오른쪽은 금 3개와 은 1개로 남고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전남체육고 카누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다. 목포제일여고 이예진·이행은은 k-2 200m에서 53초329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김민석 전남카누연맹 전무이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남 선수들이 다수의 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까

지 철저히 준비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여자 농구부가 13일 부산대체육관에서 열린 '2023 KUSF 대학농구 U-리그' 여자 대학부 챔피언결정전에서 부산대를 63-51로 꺾고 우승한 뒤 시상대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 여자농구, 6년 만에 대학리그 챔프 등극

대학농구 U-리그 챔피언결정전서 부산대 63-51로 격파
 2016·2017년 이어 세번째 정상...26득점 양유정 MVP

광주대 여자 농구부가 '2023 KUSF 대학농구 U-리그' 여자 대학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17년 이 대회 우승 이후 6년 만이다. 광주대는 지난 13일 부산대체육관에서 열린 부산대와의 챔피언결정전에서 63-51로 승리, 우승 컵을 들어올렸다. 광주대는 이번 우승으로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KUSF 대학농구 U-리그 정상에 올랐고, 6년 만에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올시즌 광주대는 정규리그 5승5패를 기록,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지난 8일 플레이오프 4강전에서 수원대를 연장

혈투 끝에 84-82로 힘겹게 누르고 결승에 오른 광주대는 부산대를 상대로 강한 압박 수비와 속공을 앞세워 1쿼터부터 18-9로 앞서 나갔다. 1쿼터의 기세는 2쿼터에서도 이어지며 33-23, 10점 차 앞선 채 전반을 마친 광주대는 3쿼터 후반 들어 부산대의 압박 수비에 실책을 연발하며 점차 점수 차가 좁혀졌고 4쿼터 초반 47-43, 4점 차까지 쏘였다. 하지만 광주대는 더 이상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다시 점수 차를 벌려갔고 결국 12점 차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광주대 양유정(2년)은 플레이오프 4강전(36

점)과 챔피언결정전(26득점)에서 맹활약을 펼쳐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다. 양유정은 "우리팀이 힘든 상황속에서도 '웃으면서 우리가 할 것을 하자'고 한계 너무 잘 풀렸다. 힘들지만 값진 우승해서 너무 행복하다"며 "앞으로 더 성장해서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선경 광주대 농구감독은 "우승한지가 까마득한 것 같다. 경기 내내 우승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서 선수들과 함께 뛰는 마음으로 서서 경기를 지휘했는데 선수들이 성취를 위해 열심히 뛰어서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나왔다"며 "현재선수들이 고교 졸업 후 프로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대학을 거쳐 프로에 가도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니 대학 농구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갑수(가운데) 광주시체육회장이 14일 광주전자공고를 방문해 배구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갑수 시체육회장, 전국체전 광주선수단 격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임직원들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 대표선수단의 사기진작과 상위 입상을 기원하며 격려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14일 근대5종 등 20종목 225명이 출전하는 광주체고 교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민생활관과 광주전자공고, 광주체고, 조대여고를 차례로 방문해 강화훈련 중인 펜싱, 배구, 핸드볼 대표선수단을 격려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49개 종목 17개 시도 3만여명이 49개 종목에서 매달 경쟁을 벌일 예정이며 광주시는 48종목 1236명이 대표선수출전한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광주시 목표달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하고, 부상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장애인육상, 전국종별선수권 종합우승

금 24·은 20·동 13개...역대 최고
 광주장애인육상 선수단이 제4회 전국장애인종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총 28명(선수 28·임원 및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선수단이 지난 11-13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 24개, 은 20개, 동 13개 등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우승했다. 또 5개의 한국신기록도 경신했다. 김지혜가 F12, F13(시각장애) 여자 원반·포환·창던지기에서 각각 3개의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지혜는 올해 11월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 2년 연속 3관왕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됐다. 이수연은 T20(지적장애) 여자 200m에서 28초05를, 장신영은 F20(지적장애) 남자 포환던지기에서 10m95를 기록해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대동 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 회장은 "광주 육상 선수단이 기록적인 폭염에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야외 훈련에 매진한 결과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이상준 감독과 박영식 코치의 헌신적인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올해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잠
- 2관 오픈하이머
- 3관 타겟
- 4관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 5관 달짝지근해: 7510
- 6관 잠
- 9관 난자터들: 뮤턴트 대소동, 오픈하이머
- 7관씨네커플 달짝지근해: 7510, 일주일간 친구
- 8관씨네커플 치악산, 콘크리트 유토피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 9. 15-16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
 19시 30분

물결

극단 코끼리들이 웃는다
물결
 일시: 2023-09-15(금)~16(토)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야외)
 문의: 062-613-8235

Deutsches Radio Philharmonie

2023. 09. 16 "17:00"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